

〈일반논문〉

인간의 텍스트로서 신약 성경

정 기 문 *

〈목차〉

- I. 서언
- II. 신약 성경에 대한 시각의 변화
- III. 신약 성경의 필사와 본문의 변개
- IV. '없음' 구절들의 문제
- V. 결어

[국문초록]

인류 최대 종교인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 성경은 인류 사유의 형성과 발전에 그리고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책은 단 하나의 관점으로 일혀왔다. 이 책이 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신앙이 이 책을 읽는 거의 유일한 관점이었다. 이 논문은 비판적인 역사학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도하였다.

역사학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인간이 만든 하나의 텍스트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몽사상의 성립 이후 세상의 모든 것을 이성 과 비판의 관점으로 보려는 태도가 확립되었고, 18~19세기의 지식인들은 신약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려는 태도를 확립하였다. 필사본 연구 결과는 이런 태도

* 군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근대 초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 필사로 성경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개가 이루어졌다. 사소한 실수로 이루어진 작은 변개도 있지만, 때때로 문단이나 장 전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원본 신약 성경과 매우 다른 것이다. 신약 성경은 필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약 성경이 신성한 책이기에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성경은 어디까지나 신앙의 참고서일 뿐이지, 결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진리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편집한 텍스트일 뿐이다.

□ 주제어

신약 성경, 기독교, 텍스트, 변개, 비평

I. 서언

신약 성경은 인류 최대 종교인 기독교의 경전이다. 지금까지 쓰인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이 발행되고 많이 읽혔으며, 인류 사유의 형성과 발전에 그리고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책은 단 하나의 관점으로 읽혀왔다. 이 책이 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경전이기에 때문에 신앙이 이 책을 읽는 거의 유일한 관점으로 군림해왔다. 호교론자들은 기독교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로지 신앙의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읽고 있다. 반면 기독교에 비판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신약성경을 신앙서로 규정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 자체를 무가치한 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는 잘못이다. 특히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약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 세계의 1/3이 넘는 기독교 신자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 역사에서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신학의 관점을 벗어나서 역사학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인간이 만든 텍스트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학은 신약 성경을 하나의 문서로 보고 비판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시각을 넘어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본다. 예수나 그의 제자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도 특별한 영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별도의 관점으로 특별 대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 신자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본다. 예수나 그의 제자들의 말이나 활동을 살펴볼 때 그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활동하였고, 그들의 행동이 다신교도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는지에 더 관심을 둔다.

신약 성경은 특히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어떤 개인이 쓴 문서가 아니라 수십 명의 작가들이 수십 년 동안 쓴 글들이고, 어느 한 순간에 기록한 문서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2~3백 년 동안 오랜 평가를 거치면서 경전의 위상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경전을 세속의 문서를 다루듯이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을 불경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이미 신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확립된 방식이며, 또한 신약 성경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읽는 방식이다. 신약 성경의 문서들은 원래 종교의 경전으로 집필된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출범할 시점, 즉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새로운 종교의 교리로 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수는 기록을 전혀 남기

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와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완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신성한 경전으로 여겼고, 또한 종말이 매우 임박했기에 특별히 문서를 제작하여서 새로운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¹⁾ 이 논문은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필사본 연구가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약 성경에 대한 시각의 변화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와 그의 1세대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으로서 ‘참 유대교’를 만든다고 생각하였다.²⁾ 따라서 그들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구약 성경이 하느님의 거룩한 영감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그 내용에 일점일획도 오류가 있을 수 없으며, 구약에 담긴 모든 예언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와 바울이 죽은 후 기독교가 로마 전역으로 뻗어나갈 때 신자들

1) Raymond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New Haven: Yale Univ. Press, 1997, p.5.

2) L. B. Glick, *Abraham's Heirs*,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9, pp. 2~5.

을 지도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해나가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부라고 불린다. 이들은 예수와 바울의 구약 성경에 대한 태도를 이어받았다. 96년경 로마에서 활동하였던 클레멘스는 “거룩한 성경은 진실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며, 그에는 불의한 것이나 거짓된 것은 하나도 없다.”³⁾라고 말하였다. 이는 1세기 후반 기독교 신자들의 구약 성경에 대한 태도를 대변한다. 이후 2~3세기의 주요 교부들인 유스티누스, 아테나고라스, 테르툴리아누스는 모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안에 조금도 오류가 없다는 생각을 거듭 천명하였다. 특히 로마 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하였던 가이우스(Caius, 180~217)는 “성경은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기에 그것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마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⁴⁾

2~4세기에 예수의 제자들과 후계자들이 쓴 문서들이 신약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쓰인 것이기에 그 안에는 조금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유대인과 기독교 창시자들의 구약 성경에 대한 태도를 신약 성경에 그대로 투사한 것이다. 367년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을 제시한 아타나시우스는 “성경 안에는 조금도 불일치가 없으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진리이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였다.⁵⁾ 그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는 복음서의 불일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룩한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말씀이기에, 그 안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⁶⁾

교부들의 이런 시각은 ‘교부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

3) Clemens, *1 Clemens*, 45 : 2~3.

4) Caius, *Fragments*, 3.

5) Athanasius, *Letterae*, 19, 3.

6) Johannes Chrysostomos, *Homilies*, 15, 3.

해서 정리되었다. 그는 “나는 성경에 대해서 그 저자들이 오류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있다고 확신한다. 만약 성경에 진실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나를 당혹시킨다면, 나는 필사본이 잘못 되었거나, 번역자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⁷⁾라고 말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성경의 절대적 무오성을 믿었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창세기에 쓰인 대로 노아 홍수 이전의 인류는 수백 년을 살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종족을 칠 때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었다고 믿었다.⁸⁾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기독교 신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태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성경을 읽었다. 중세 내내 신학자들은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거기에 어떤 오류나 모순도 있을 수 없으며, 만약 어떤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믿었다.⁹⁾ 이런 태도는 중세말까지 계속 되었는데, 중세 말기의 철학자로서 ‘면도날 같은 논리’로 유명한 오캄은 구약이나 신약에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이며, 그런 주장은 확고하게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캄의 이런 태도는 성경의 권위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이후 종교 개혁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¹⁰⁾

16세기 종교 개혁은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하였다.

7) Augustinus, *Letterae*, 82. 3.

8) Norman Geisler ed., *What Augustine Says*,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3, p.42.

9) Jonathan Moorhead, “Inerrancy and Church History: Is Inerrancy a Modern Invention?”, *Masters Seminary Journal*, Vol. 27-1, 2016, pp. 80~81.

10) Keith A. Mathison, *The Shape of Sola Scriptura*, Moscow: Canonpress, 2010, pp. 78~9는 오캄의 태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1517년 종교 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를 그의 모토로 삼았다. 이 모토는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가 아니라 성경만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종교 개혁 이전 카톨릭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가르쳤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초대 교회부터 교회가 쌓아온 전통이다. 이 전통을 간직하고 해석하는 것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기에, 전통은 교회의 권위라고 할 수도 있다. 루터는 이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근거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주장은 무엇보다 성경에 적용된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내용이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신앙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용이 부족한 경우 보충하여 추가의 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톨릭 교회는 이런 주장에 근거하여 교황제도, 성인 숭배, 연옥 신앙, 성모 무염설 등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루터는 성경은 다른 어떤 권위체에 의해서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회가 성경을 보충하거나, 성경 구절의 해석을 통하여 추가의 교리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 루터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느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에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¹¹⁾

루터에 이어 종교 개혁을 주도하였던 칼뱅 역시 성경의 절대성과 무오성을 확고하게 믿었다. 그는 특히 축자영감설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6을 주석하면서 “성서의 문서들에서 어떤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율법과 예언들이 인간 임의

11) Norman L. Geisler, *Inerrancy*, Grand Rapids: Zondervan, 1980, p.481.

대로 지어낸 독트리나가 아니라 성령이 불러준 것을 받아 쓴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¹²⁾ 칼뱅의 이 주석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 쓴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글자는 한 자, 한 자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여 쓴 것이다. 이 주장을 축자영감설이라고 한다. 칼뱅 본인은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지만, 19세기 이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칼뱅의 주장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축자영감설을 주요 교리로 제시하였다. 이후 축자영감설에 근거한 성경 신봉은 개신교 여러 교파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루터와 칼뱅은 성경의 절대성과 무오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성경에 대한 강력한 신봉은 성경을 읽는 방식에서 새로운 태도를 낳았다. 루터 이전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믿었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상징, 은유, 비유로서 해석하였다.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성경 안에는 역사나 과학적 사실에 어긋나는 주장, 모순되어 보이는 진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등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령 예수는 공생애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였다. 유대인은 수십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성전은 실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사흘 만에 만든다는 것은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사물, 그리고 진술들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뜻을 파악하는 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한다.¹³⁾

12) 양신혜, 「칼뱅, 축자영감설의 창시자인가?」, 『현상과 인식』 33-3, 2009, 186쪽.

13) 알레고리는 환유, 직유, 비유, 우화, 상징, 이미지 등과 개념이 중첩되지만 이것들과 구별된다. 알레고리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우, 「다시 보는 알레고

그런데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이고 인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역사적 사실성이나 설명의 논리성을 무시하였다.¹⁴⁾ 따라서 알레고리 해석은 매우 그렇듯 해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필요를 강조하기에 성경의 원 뜻을 왜곡할 수 있었다.¹⁵⁾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알레고리 해석의 위험성을 깨닫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가톨릭 수도사였을 때 알레고리의 전문가이었다. 나는 성경의 모든 것을 알레고리로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알았다.”라고 말하였다.¹⁶⁾ 루터의 이 고백은 성경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단순하고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원래 신앙을 되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루터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터가 성경의 해석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때, 서양의 세계관은 거대한 변혁을 겪었다. 중세를 주도하였던 종교적, 신앙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합리적, 이성적 세계관이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1687년 뉴턴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제원리』를 발표하면서 세계가 하느님

리적 성경 해석학, 『Canon&Culture』 8-2, 2014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14) 김정우, 「다시 보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 『Canon&Culture』 8-2, 2014, 27쪽.

15) 김득중, 「역사비평 이전과 이후의 성서해석」, 『신학과 세계』 21, 1990, 46~47쪽.

16) M. Grant & D. Tracy,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p.94.

의 뜻이 아니라 자체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런 인식은 17~18세기 계몽주의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계몽주의는 신앙이 아니라 이성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계몽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받침돌인 성경 또한 오직 이성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성경과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가령 영국의 철학자인 홉스(Hobbes)는 그의 『레비아단』에서 구약 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스피노자는 성경도 세속의 다른 책과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이런 주장은 이후 계몽주의자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다. 대다수의 계몽주의자들은 성경을 오직 인간의 텍스트로 읽으려고 하였고, 성경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비주의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건들과 진술을 터무니없는 미신으로 비판하였다. 이런 시대 정신 가운데 역사 비평적인 성경 연구가 탄생하였다. 역사 비평적 연구 방법은 “성경을 교회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교리로부터 해방시켜 다른 세속적 문서를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¹⁸⁾

역사 비평은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구약 성경 연구에 적용되었다. 최초의 선구자는 리샤르 시몽(Richard Simon)이었다. 리샤르 시몽(Richard Simon, 1638~1712)은 『구약 성서 비판사 Critica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초판 1678, 영어 번역본 1682)에서 「구약 성경」의 연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특히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집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수도회에서 추방되었지만 그의 주장은 점차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영국에서는 토마스

17) 이은재,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 방법론의 전개와 그 과제」, 『한국개혁신학』 14, 2003, 70쪽.

18) 김득중, 「역사비평 이전과 이후의 성서해석」, 『신학 과세계』 21, 1990, 46쪽.

아이켄헤드라는 청년이 그의 책을 읽고 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다가 18세의 어린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다.¹⁹⁾ 18세기에 역사 비평은 고등비평으로 불리며 발전하였는데, 주로 구약 성경의 성격과 연대, 문서로서의 특징,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거나 이적들의 사실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특히 아스트뤽(Jean Astruc)은 창세기에 여러 문서(아휘문서와 제사장 문서)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구약 성경이 여러 문학 작품의 혼합물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낳았다.

18세기에도 신약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세기에 시작되었다. 신약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 연구를 주도한 사람들은 이른바 튀빙엔 학파이다. 튀빙엔 학파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인 바우르(F. C. Baur)는 성경을 인간이 만든 텍스트로 보고, 성경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인지, 저자의 관점과 목적은 무엇인지, 그가 관심을 가지는 논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⁰⁾

신약 성경이 신학적으로 각색된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데, 바우르 다음으로 크게 기여한 인물은 브레데이다. 1901년 브레데(William Wrede)는 『하느님 왕국의 비밀 : 예수의 메시아 직분과 수난의 비밀』을 발표하였다.²¹⁾ 그에 의하면 마르코 복음서에는 해명하기 곤란한 사실들이 연달아 등장한다. 가령 예수가 신이한 기적을 거듭 행하였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였고, 귀신들이 거듭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는 그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한

19) Michael F Graham, *Blasphemies of Thomas Aikenhea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8, p.90.

20) 이은재,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 방법론의 전개와 그 과제」, 『한국개혁신학』 14, 2003, 87~88쪽.

21) D. Burkett,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and the Origins of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2002, p.161.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가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사실들을 각색하였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공생애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마르코 복음서의 주제에 맞추어서 각색된 것들이고, 복음서는 예수의 전기가 아니라 저자가 특정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존 전승을 편집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넣은 문학 작품이다.

바우르와 브레데가 확립한 신약 성경 연구에 대한 시각은 이후 편집 비평으로 이어졌다. 20세기 중후반에 보른캄, 막센, 콘젤만을 비롯한 독일의 신학자들이 주도한 이 비평법에 따르면, 성경의 저자는 전해 내려오던 여러 자료를 모은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적인 작가의 태도로 편집한 사람들이다. 보른캄, 콘젤만 등은 주로 복음서를 대조, 분석하면서 복음서 사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인 관점에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가령 마태오 복음서는 12제자를 소개하면서 베드로의 이름 앞에 ‘첫 번째’라는 부사를 첨가하였는데, 이는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태오 복음서의 저자가 베드로의 권위를 높이려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단어를 첨가하였다고 파악된다.

편집 비평에 따른 연구에 의하면 성경 각 권의 저자들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이전 자료들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였고, 때때로 기존에 없는 본문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존 자료의 해석자인 동시에 새로운 표현과 내용을 첨가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의 창작자이다.²³⁾ 20세기 중반 이후 이 비평법에 의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의도

22) J. M. Perry, *Exploring the Messianic Secret in Mark's Gospel*, Kansas: Sheed & Ward, 1997, p. x.

23) 김득중, 「편집 비평적 해석학」, 『해석학과 윤리』 2, 1997, 438~439쪽, 445쪽.

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문을 어떻게 편집하거나 창작해 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20세기 후반에는 편집 비평을 넘어서는 여러 연구법이 등장하였다. 특히 수사학적 비평, 설화 비평, 독자 반응 비평 등이 발달하였는데, 이것들을 통틀어 문학비평 혹은 문예비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비평법에 의하면 성경은 소설이나 에세이와 같은 다른 문학작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의 주요 목적은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독자를 설득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은 문학 작품을 쓸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였다. 성경 연구자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점에 대한 연구를 진척 시켜야 한다. 작품의 구조와 텍스트에서 사용된 문학적인 기법, 본문의 작성에 작성된 수사학적인 기법, 독자의 반응에 대한 고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한다.²⁴⁾

이렇게 역사 비평 관점이 성립한 이후 편집 비평과 문학 비평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세속의 문서와 똑같은 작품으로 규정하고, 이성과 비판적 관점에 연구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III. 신약 성경의 필사와 본문의 변개

근대에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원본을 베껴 썼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베껴 쓰는 작업을 필사라고 하는데, 필사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수정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아

24) 문학비평 그리고 문학 비평의 하나로 서사 비평에 대해서는 마크 알레 포웰/이종록 옮김, 『서사 비평이란 무엇인가?』,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을 보라.

무리 마음을 굳게 잡고 조심스럽게 베껴 쓴다고 해도 눈과 귀의 실수로 인한 변개가 일어난다. 가령 한 절의 끝부분과 다음 절의 끝 부분이 같을 경우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어떤 사본에는 루카 복음서 10장 32절 전체가 없다. 이는 31절의 끝 단어와 32절의 끝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필사가가 착시 현상으로 혼동에 빠져서 32절을 건너뛰고 33절로 넘어간 결과이다.²⁵⁾

이런 현상은 매우 드물 일이 아니었다. 가령 루카 복음서 14:26 그리고 요한 복음서 17:15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 요한 복음서 17:15 절의 변개는 상당히 흥미로워서 언급하고 넘어갈만하다. 이 구절의 원문은 “저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이다. 그런데 어떤 사본 필사자는 이 구절을 “저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악마에게서 지켜주시 마시기를 간구합니다.”라고 잘못 필사하였다.²⁶⁾ 이 필사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베끼는 데만 정신을 쏟다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음에 틀림없다. 예수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필사본에 수정을 가하는 것을 변개(變改)라고 하는데 눈이나 귀의 실수로 인한 것은 비의도적인 변개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 이런 비의도적인 변개가 매우 빈번했는데, 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시 글쓰기에서 구두점 찍기, 대소문자의 구별, 그리고 띄어쓰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현재도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글을 제대로 읽으려면 매우 힘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본문의 변화

25)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86쪽. 루카 복음서 10장 31절과 32절의 끝 단어는 ‘그가 맞은 편으로 지나갔다’는 의미를 가진 ‘ἀντιπαρήλθεν’이다.

26) Andrew Gregory and Christopher Tuckett ed., *The Reception of the New Testament in the Apostolic Fath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1~12를 보라.

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도적 변개이다.²⁷⁾

원본을 필사하면서 필사자는 원문을 읽고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사고 체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본문을 변개한다. 가령 원문의 문법이 틀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성경 본문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교리에 맞지 않은 경우 등등에 이런 변개가 이루어진다. 저작권 개념이 확실한 현대인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함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금기를 갖고 있지만 고대에는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필사자들이 변개가 수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들의 변개가 빈번히 일어나곤 하였다. 고대나 중세의 필사자들은 어떤 문서를 필사하다가 그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꾸어 놓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보다는 이전 필사자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초기 기독교 필사본 연구의 대가인 알란드(Kurt Aland, Barbara Aland) 형제는 이에 대해서 “필사자들은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텍스트를 자유롭게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기독교의 초기 시기 즉 경전들이 아직 정경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던 초기에 특히 심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스스로 ‘성령 영감’을 받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였다.²⁸⁾ 이 말은 2세기의 필사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직접 교감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바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음을 암시 한다

27)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작가나 필사자들이 원문을 수정하거나 변개하는 관행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Charles E. Hill & Michael J. Kruger ed., *The Early Text of the New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268~270을 보라.

28) Kurt Aland, Barbara Aland/tr. F. Rhodes., *The Text of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p.290.

이렇게 변개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필사본을 서로 비교해보면 금세 명확히 알 수 있다. 현재 그리스어로 쓰인 성경 필사본은 5800종이 넘는다.²⁹⁾ 그런데 어떤 것도 다른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모든 필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변개를 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수많은 변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고대의 신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 가령 위대한 교부 가운데 한 명인 오리게네스는 그런 상황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본들에 지나치게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일부 필사자들의 부주의와 일부 필사자들의 뻔뻔함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베낀 것을 한 번 더 검토하는데 소홀하거나 아니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덧붙이거나 삭제해 버렸다.³⁰⁾

이렇듯 성경 필사자들이 뻔뻔하게 변개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성경 ‘원문’의 복원이 가능할까?

현재 사복음서의 ‘원본 autograph’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매우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 그리고 고대인들이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거의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고대 작품들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널리 알려져 있는 고대의 작품들, 가령 로마의 위대한 역사가인 타키투스 작품의 필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은 9세기의 것이며, 1세기 유대의 상황을 가장 자세하게 전하는 요

29) Edward D. Andrews & Don Wilkin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 The Science and Art of Textual Criticism*, Cambridge: Christian Publishing House, 2017, p.111.

30) 바트 어만/민경식 옮김, 『성경 왜곡의 역사』, 청림출판, 2006, 109쪽에서 재인용.

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필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0세기의 것이다.³¹⁾

비기독교 문헌들에 비하면 사복음서 필사본의 보존 상태는 상당히 좋다. 사복음서 필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P52(파피루스 52번)인데, 작성연대가 130년경으로 파악되며 요한 복음서 18:31~33, 37~38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요한 복음서가 1세기 말에 집필되었다면 현재의 필사본은 요한 복음서의 원본과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복음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최초의 필사본은 P45(파피루스 45번)인데 이는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Chester Beatty Papyri)의 첫 번째 파피루스로 3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었던 것은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복음서의 텍스트가 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²⁾

이렇게 사복음서의 사본 보존이 다른 세속 문헌들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본들은 결코 ‘원본’이 아니다. 현재의 사본들은 원본이 작성된 후 최소한 수십 년 흐른 뒤의 판본을 담고 있으며, 그 수십 년 동안 많은 변개가 이루어졌다. 신약 성경의 원본 복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일찍이 르네상스 시기부터 위대한 학자들이 신약 성경의 원본을 찾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밀(John Mill, 1645-1707)을 들 수 있다. 그는 널리 인정되는 수용 본문에 30,000개에 이르는 이문을 병기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의 이문이 30,000개에 이른다는 것에 깜

31) Stanley Porter ed., *The Pauline Can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p.211.

32) Arthur Bellinzoni, “The Gospel of Luke in the Apostolic Fathers”, *Trajectories through the New Testament and the Apostolic Fathers*, Oxford: Oxford Univ. Press, 2005, p.47.

짜 늘랐다. 이후에 필사본과 이문에 대한 연구가 학문으로 정립되었고, 그 결과 성경의 원문을 밝히는 일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³³⁾ 현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약 성경 사본들에 나타난 이문의 수는 대략 300,000~400,000개나 된다.³⁴⁾ 신약 성경이 약 140,000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단어마다 2~3개의 이문이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이문들의 다수가 철자의 오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문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신약 성경의 전승이 완전히 엉터리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철자나 띄어 쓰기의 오류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나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문들도 상당히 많다.

사복음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몇 가지만을 살펴보자. 현재 마르코 복음서는 16장 20절로 끝난다. 그런데 오래되고 좋은 필사본은 16장 8절로 끝난다. 더욱이 4세기의 작가들인 에우세비오스나 히에로니무스도 마르코 복음서가 16:8절로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³⁵⁾ 따라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누군가 16장 9절에서 20절을 후대에 삽입하였음에 틀림없다.³⁶⁾ 아마도 2세기 중반 사복음서가 널리 알려지면서 마르코 복음서의 마지막 장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조화되지 않은 것을 보고, 다른 복음서와 조화를 추구했던 누군가 의도적으로 첨가했을 것이다.³⁷⁾

33) 유럽의 고전 필사본 연구,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성경 필사본 연구에 대해서는 Rudolf Pfeiffer,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1300 to 18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을 참조하라.

34) Robert Stewart, ed., *The Reliability of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11, p.21.

35) G. A. Wells, *The Historical Evidence for Jesus*, New York: Prometheus Books, 1988, p.8.

36) 김철손 외 지음, 『신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1972, 57~58쪽.

37) M. Bird, *The Gospel of the Lord: How the Early Church Wrote the Story of Jesus*, Grand Rapids: William Eerdmans, 2014, p.303.

그런데 이 사실을 더욱 흥미롭게 해 주는 일화가 있다. 5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프리어 사본(Codex Freerianus)은 마르코 복음서의 16장 14절을 더욱 확장하였다. 2~3세기 언젠가 확장되었고, 지금 널리 통용되는 마르코 복음서 16장에 따르면 14절에서 예수는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몹시 꾸짖었다.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는 꾸짖다가 말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서를 전하라.’라고 명령한다.³⁸⁾ 프리어 사본은 만든 필사자는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가 꾸짖었으면 제자들이 핑계를 대거나 반성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는 14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서 첨가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를 변호하여 말하였다. “이 불법과 불신의 시대는 사탄 아래 있습니다. 그는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권능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의 의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말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탄의 권세 시대가 끝났다. 그러나 다른 끔찍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내가 죽음으로 넘겨졌다. 그들이 진리로 돌이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이 하늘에 있는 영적이고 영원한 의의 영광을 상속하도록 하기 위함이다.”³⁹⁾

프리어 사본이 만들어진 것이 5세기인데, 현재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38) 마르코 복음서 16:14~15.

39)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한기독교서회, 2008, 102쪽에서 재인용.

에 의하면 그 때는 신약의 정경화가 완성된 시기이다. 신약의 정경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신약 27권이 정경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본문에 대한 변경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리어 사본의 이 확장 문단은 이런 일반적인 관념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 마르코 복음서에서 변개가 많이 이루어졌다. 마르코 복음서는 그 첫 구절부터 문제이다. 현재의 성경을 보면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고대 판본들은 상이한 증거를 보인다. 이 구절이 여러 사본들(Ⓢ, A, B, D, K, L, W, Δ, Π, 33)에 있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중요 사본들(Ⓢ*, θ, 28)에는 없다.⁴⁰⁾ 또한 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오리게네스의 마르코 복음서에 대한 글에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없다. 이렇게 사본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본이 어떠한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오직 사본 증거만을 보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시작”이 있었을 개연성이 좀 더 높다. 앞에서 보았듯이 좀더 많은 필사본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초기 기독교 교리에 매우 합치하는 점, 그리고 그 구절이 마르코 복음서의 첫 부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제의 구절을 어떤 초기 기독교의 필사가가 실수로 삭제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경우 원래 그 구절이 있었는데, 일부 필사자들이 삭제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구절을 삽입했고 그것을 다수의 필사자들이 반복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⁴¹⁾ 이외

40) Adam Winn, *The Purpose of Mark's Gospel: An Early Christian Response to Roman Imperial Propaganda*, Tubingen: Mohr Siebeck, 2008, p.94.

41) Bart Ehrman, *Studies in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에도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인간성과 신성에 관련된 구절이 많이 변경되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르코 복음서에 변경이 특히 많이 이루어진 것은 그것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가장 이른 시기의 교리, 혹은 원시 기독교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사후부터 기독교의 교리는 끊임없이 변해왔으며 어느 정도 그 변함이 멈추고 교리가 정비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후의 일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필생의 투쟁과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기독교의 주요 교리인 원죄론, 예정론, 교회론 등을 확립하였다. 여기서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다시 필사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마지막 장이 대폭 추가된 것은 요한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현재 요한 복음서는 21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장을 읽어보면 요한 복음서의 저자는 말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⁴²⁾라고 말했다. 이는 저자가 글을 맺을 때 쓰는 전형적인 형식구이다. 이렇게 요한 복음서의 원래 저자는 20장으로 글을 끝냈다.

그런데 누군가가 후대에 21장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주인공이 바뀐다는 것이다. 요한 복음서에는 이른바 애제자(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애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20장까지는 애제자가 베드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21장에는 애제자의 역할이 축소

Leiden: Brill, 2006, pp. 149~154.

42) 요한 복음서 20:30~31.

되고 베드로의 역할이 부각된다.⁴³⁾ 따라서 21장은 베드로의 위상을 높여려는 사람이 가필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요한 복음서의 현재 순서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몇몇 학자들은 요한 복음서 15~17장은 원래 13장 34~5절 뒤에 있었고, 6장은 4장 뒤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는 판본들이 있기 때문이다.⁴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텍스트는 수없이 변개된 것이다.

IV. '없음' 구절들의 문제

앞 장에서 성경의 본문이 계속 변개되어 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도 학자들의 연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기독교 지도자들이 인정한 여러 성경에 '없음'이라는 문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어제까지 멀쩡히 있던 본문이 어느 날 '없음'이라고 표기되고, 또 어떤 본문에는 '삭제할 것을 고민 중'이라는 표시가 붙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은 '도대체 무슨 헛소리요. 신성한 성경을 모독하지 마시오.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일점일획도 바뀔 수 없소'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

43) 서중석, 『복음서 해석』, 대한기독교서회, 1991, 273쪽.

44) Helmut Koester, "Gospels and Gospel Traditions in the Second Century", *Trajectories through the New Testament and the Apostolic Fathers*, Oxford: Oxford Univ. Press, 2005, p.41.

경을 펼쳐서 꼼꼼히 읽다보면 갑자기 이상한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구절은 내용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고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2006년 개역개정판을 가지고 확인해보면, 이 단어는 마태오 복음서에 3회(17:21, 18:11, 23:14), 마르코 복음서에 4회(9:43, 9:46, 11:26, 15:28), 루카 복음서에 2회(17:36, 23:7), 사도행전에 3회(8:37, 15:34, 28:29),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에 1회(16:24) 나온다. 이 13개의 구절은 원래의 성경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번역서들을 보아도 모두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⁴⁵⁾

성경의 판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없음’이라는 글자를 보고, 성경이 2천 년 전에 쓰였으니까 원본이 사라지고 없는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킹 제임스 본 성경을 보면 해당 구절들이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멀쩡히 내용이 다 들어있다. 문제의 그 구절들이 ‘없음’이라고 표기된 것은 19세기까지 이후 발전한 성경 연구 결과이다. 성경의 원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성경에 수많은 이문이 있으며, 어떤 구절들은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원문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성경 원문 연구가 더 발전하면서 이렇게 ‘없음’으로 표기해야 할 구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19세기 말까지 성경의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원문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혀 품지 않고, 다만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필사본만을 가지고 성경의 본문을 정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사본은 모두 4세기 이후에 작성된 양피지 사본뿐이었다. 따라서 에라스무스 이래 19세기말까지 수없이 많은 학자

45) 장동수, 「텍스트스 레캡투스와 신약성서 번역」, 『성경원문연구』 23, 2008은 ‘없음’으로 표시된 구절들의 사본 증거들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들이 노력하여 만든 성경은 모두 4세기 이후의 판본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 본문이 20세기 중반까지도 널리 통용되었다.

이런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세기 최말이었다. 1896~7년 그렌펠(Grenfell)과 헌트(Hunt)가 이집트 옥시링쿠스에서 이른바 파피루스 사본을 대량 발견하였다. 파피루스는 다년생 풀인 파피루스를 재료로 해서 만든 일종의 종이로서 4세기에 양피지가 널리 쓰이기 이전에 주요한 필기 재료이었다. 따라서 파피루스 사본이 양피지 사본보다 연대가 앞선다.⁴⁶⁾ 파피루스 사본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파피루스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2~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본들과 비교하면 성경의 원문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렌펠과 헌트 이전에도 파피루스 사본의 존재가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그 수가 너무나 적고, 단편적이어서 성경 본문 연구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렌펠과 헌트의 발견은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 후 파피루스 사본의 발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까지 약 130개가 발견되었고, 연구 결과도 계속 축적되어 20세기 중반 이후 성경 본문 연구가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에 아무리 보수적인 신학자나 기독교 지도자라고 해도 성경 본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기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축소하는 작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적으로 성경을 편찬하는 각종 위원회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원 본문에 없었던 것이 확실한 여러 구절들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20세기 말 이후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경은 19세기까지 사용되던 성경에 비하면 점점 그 내용이 줄어들고 있다.

46) 민경식,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최근 동향」, 『성경원문연구』 11, 2002, 52쪽.

앞에서 말한 13구절 이외에도 최근 성경을 편찬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삭제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다. 이 기도는 마태오 복음서 6장 9~13절에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버전의 성경들에서 그 끝나는 내용이 다르다. 16세기에 편찬된 ‘킹 제임스본 성경’은 이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로 끝나고, 우리 나라의 옛날 성경들도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현재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본이나 새번역은 이 구절을 괄호 속에 넣어 놓았다. 이는 이 구절이 원래 성경에 없었다는 주장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본은 이 구절을 아예 삭제하였다. 공동번역본 편찬자들은 그 구절이 원문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또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자. 예수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는데, 얼마나 번민이 깊었던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였다. 2세기 이후 기독교 지도자들은 루카 복음서 22:43~44에 전하는 기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수가 진정한 인간이었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필사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고대의 여러 좋은 필사본에 이 구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19세기 말 이래 대부분의 전문 연구자들은 이 구절이 후대에 삽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구절의 삽입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성경 편찬자들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몇몇 성경 편찬자들을 이 구절을 삭제하였고, 여러 편찬자들은 진성성에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삭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괄호 속에 넣어 놓았다.⁴⁷⁾ 이렇게 성경 편찬자들도 이 구절의 진정성을 의심하

47) 삭제한 성경으로는 영어권에서는 RSV 성경, 한국에서는 공동 번역 성경을 들

고 있고, 거의 모든 전문 연구자들이 이 구절이 삽입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⁴⁸⁾ 이 구절은 머지않아 성경 본문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번뇌 속에서 기도를 마치고 예수는 해골산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루카 복음서 23장 33~34절에 따르면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이 구절도 예전 성경들은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새번역본 성경은 구절을 괄호 속에 넣어 놓았다. 역시 이 구절이 성경의 원문에 없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는 생전에 율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예수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는 이런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널리 인용된다. 이 이야기는 요한 복음서 8장 1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된다. 복음서가 그리 길지 않은 문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려 11개의 절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필사본에 따라서 요한 복음서 내에서의 위치가 다르고, 심지어 어떤 필사본에는 루카 복음서 21장 끝에 나온다. 더군다나 요한 복음서의 중요한 필사본, 즉 바티칸 사본과 시네 사본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⁴⁹⁾ 또한 그 문체와 어법이 요한 복음서의 다른 부분과 사뭇 다르다.

수 있다. 가로를 표시한 성경으로는 영어권에서는 GNB, NAB, NASV, NIV, NKJV, NRSV, 한국에서는 새번역 성경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Lincoln H. Blumell, “Luke 22:43–44: An Anti-Docetic Interpolation or an Apologetic Omission?”, *A Journal of Biblical Textual Criticism*, Vol. 19, 2014, p.2를 보라.

48) R. B. Stewart ed., *The Reliability of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11, pp. 163~164.

49) K. Elliott & I. Moir, *Manuscripts and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따라서 대부분이 학자들이 이 이야기는 후대의 필사자가 가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⁵⁰⁾ 이 이야기가 후대에 가필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 널리 알려져서 학계에서 공유되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새 표준 개역판(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 이중 꺾쇠와 각주를 사용하여 이 이야기가 후대에 삽입되었다고 표시한 것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⁵¹⁾ 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주관으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서 7:54~8.11은 많은 필사본, 그리고 여러 고대 번역본에는 없다.’라는 각주를 달아놓았다.

하나의 장 전체가 삭제되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도 있다. 필사본 연구에 따르면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고대 필사본 가운데는 현재의 16장이 아니라 14장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15장으로 끝나는 것들이 여럿 있다. 이 사본들이 뒷부분이 누락된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의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6:25-27은 편지글을 끝맺는 일종의 송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4장으로 끝나는 필사본들에 이 송영 부분이 14장 끝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존하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P 6)에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6:25-27의 송영 부분이 15장 뒤에 있다. 이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 원래 15장으로 끝났고, 16장이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더욱이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6장의 내용은 당시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 바오로는 이 장에서 그가 같이 활동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London: T&T Clark, 1995, p.40.

50) D. C. Parker,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their Tex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342~343 ; 바트 어만/민경식 옮김, 『성경 왜곡의 역사』, 청림출판, 2006, 129~132쪽.

51) 제임스 로빈슨/소기천 · 송일, 『예수의 복음서』, 대한기독교서회, 2009, 96쪽.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바오로는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본적도 없다. 따라서 그가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 때문에 다수의 학자들은 16장은 원래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에페소 교회에 보낸 것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 편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⁵²⁾

이렇게 갈수록 성경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경의 원문이 쓰인 후에 수없이 많은 수정과 첨가가 있었고,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성경이 하느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일점일획도 없앨 수 없는 ‘절대 권위’나 ‘진리 자체’라는 편견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신앙의 참고서일 뿐이지, 결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편집한 텍스트일 뿐이다.⁵³⁾

V. 결어

신약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쓴 어떤 책보다 많이 제작되었고, 많이 읽혔다. 신약 성경이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책을 객관의 눈,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52) H. Koester, *Paul and His Worlds: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in Its Contex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7, p.253.

53) 정승우, 『인류의 영원한 고전 : 신약성서』, 아이세움, 2007, 26쪽.

이 논문은 먼저 신약 성경을 인간이 만든 텍스트로 보는 관점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하면서, 그것이 신성한 경전이기에 그 안에는 조금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이런 시각은 중세 내내 견지되었다. 근대 초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신약 성경의 무오류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계몽 사상의 성립 이후 세상의 모든 것을 이성과 비판의 관점으로 보려는 태도가 확립되었다. 18~19세기의 지식인들은 신약 성경도 이런 관점으로 연구하였고, 그 결과 성경을 교회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교리로부터 해방시켜 다른 세속적 문서를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태도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신약 성경을 역사학적 비평법으로 파악하는 것은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대한 태도의 변천을 살펴본 후에 필사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근대 초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 필사로 성경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개가 이루어졌다. 사소한 실수로 이루어진 작은 변개도 있지만, 때때로 문단이나 장 전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원본 신약 성경과 매우 다른 것이다. 신약 성경은 필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약 성경이 신성한 책이기에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성경은 어디까지나 신앙의 참고서일 뿐이지, 결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진리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편집한 텍스트이다.

(2018.04.15 투고 / 2018.05.21 심사완료 / 2018.05.26 게재확정)

[Abstract]

The New Testament as an Text Made by Men

Jung, Gi-moon

The New Testament is the most influential book in the history of mankind. It has been produced and read a lot more than any other book. Since the New Testament had an enormou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history,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is book with the eyes of objectivity and reason. This paper firstly looked a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oint of view of the New Testament as a text made by man. Deciding the New Testament as a canon, the early Christian leaders believed it was a sacred scripture so there could be no error in it. This viewpoint was maintained throughout the Middle Ages. Religious reformers, including Luther, made the Bible the sole standard of Christian faith and insisted on the inerrancy of the New Testament more strongly.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nlightenment, an attitude that thinks everything in the world in terms of reason has been established. The intellectuals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lso studied the New Testament as this point of view. As a result, they established the attitude of “studying the Bible with the same method which handles other secular documents by liberating the Bible from the tradition, authority, and doctrine of the Church” Therefore, it is not strange to understand the New Testament as the method of historical criticism. After looking to the changes in atti-

tudes toward the New Testament, this paper examined the validity of these attitudes through the result of manuscript research. Before early modern printing developed, in the process of passing down the Bible as a transcription, a number of corruptions were happened. While most of the corruptions were minor mistakes, but occasionally there were lots of case that added or changed entire paragraphs or chapters. The New Testament we have now is ver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New Testament. Many transcribers did not have the perception that the New Testament was so sacred book that it could never be changed. Therefore, the Bible was just made and edited by human.

□ Keyword

New Testament, Christianity, Text, Corruption, Criticism

[참고문헌]

1. 사료

Athanasius, *Letterae*.

Augustine, *Letterae*.

Clemens, *1 Clemens*.

Caius, *Fragments*.

Johannes Chrysostomos, *Homilies*.

장보웅 편저, 『흐레마성경, 스테판 원전 직역 신약』, 쿰란, 2006.

2. 논저

Adam Winn, *The Purpose of Mark's Gospel: An Early Christian Response to Roman Imperial Propaganda*, Tubingen: Mohr Siebeck, 2008.

Andrew Gregory and Christopher Tuckett ed., *The Reception of the New Testament in the Apostolic Fath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Bart Ehrman, *Studies in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Leiden: Brill, 2006.

Charles E. Hill & Michael J. Kruger ed., *The Early Text of the New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D. Burkett,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and the Origins of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D. C. Parker,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their Tex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ress, 2008.
- Edward D. Andrews & Don Wilkin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 The Science and Art of Textual Criticism*, Cambridge: Christian Publishing House, 2017.
- G. A. Wells, *The Historical Evidence for Jesus*, New York: Prometheus Books, 1988.
- H. Koester, *Paul and His Worlds: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in Its Contex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7.
- J. M. Perry, *Exploring the Messianic Secret in Mark's Gospel*, Kansas: Sheed & Ward, 1997.
- K. Elliott & I. Moir, *Manuscripts and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London: T&T Clark, 1995.
- Keith A. Mathison, *The Shape of Sola Scriptura*, Moscow: Canonpress, 2010.
- Kurt Aland & Barbara Aland/tr. F. Rhodes., *The Text of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 L. B. Glick, *Abraham's Heirs*,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9.
- M. Bird, *The Gospel of the Lord: How the Early Church Wrote the Story of Jesus*, Grand Rapids: William Eerdmans, 2014.
- M. Grant & D. Tracy,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1984.
- Michael F Graham, *Blasphemies of Thomas Aikenhea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8.
- Norman Geisler ed., *What Augustine Says*,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3.

- Norman L. Geisler, *Inerrancy*, Grand Rapids: Zondervan, 1980.
- R. B. Stewart ed., *The Reliability of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11.
- Raymond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New Haven: Yale Univ. Press, 1997.
- Stanley Porter ed., *The Pauline Can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 김철손 외 지음, 『신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1972.
- 민경식,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최근 동향」, 『성경원문연구』 11, 2002.
- 서중석, 『복음서 해석』,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 정승우, 『인류의 영원한 고전 : 신약성서』, 아이세움, 2007.
- 제임스 로빈슨/소기천 · 송일, 『예수의 복음서』, 대한기독교서회, 2009.
- Helmut Koester, “Gospels and Gospel Traditions in the Second Century”, *Trajectories through the New Testament and the Apostolic Fathers*, Oxford: Oxford Univ. Press, 2005.
- Jonathan Moorhead, “Inerrancy and Church History: Is Inerrancy a Modern Invention?”, *Masters Seminary Journal*, Vol. 27-1, 2016.
- Lincoln H. Blumell, “Luke 22:43-44: An Anti-Docetic Interpolation or an Apologetic Omission?”, *A Journal of Biblical Textual Criticism*, Vol. 19, 2014.
- 김득중, 「역사비평 이전과 이후의 성서해석」, 『신학과 세계』 21, 1990.
- 김득중, 「편집 비평적 해석학」, 『해석학과 윤리』 2, 1997.
- 김정우, 「다시 보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 『Canon&Culture』 8-2,

2014.

양신혜, 「칼뱅, 축자영감설의 창시자인가?」, 『현상과 인식』 33-3, 2009.

이은재,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 방법론의 전개와 그 과제」, 『한국개혁신학』 14, 2003.

이종윤, 「歴史的 바울 研究에 對한 F.C. Baur의 理解」, 『신약논단』 16, 1983.

장동수, 「텍스투스 레킵투스 와 신약성서 번역」, 『성경원문연구』 23, 2008.

